

2011년 하반기 ESCO 자금지원정책, 이렇게 변한다

우리나라 ESCO사업은 지난 1992년 도입되어 1997년까지는 연 평균 50억 원 이내의 투자사업을 실행하였으나, 1998년부터는 정부의 적극적인 ESCO활성화 정책과 국내 유가상승 등에 힘입어 시장규모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더구나 ESCO사업은 연간 1억 원 투자시 약 4천만원의 절감효과를 가지고 있을 만큼 투자대비 효율성이 확실한 사업으로 2011년에는 ESCO정책자금 예산이 3,900억원에 이를 만큼 에너지절약사업의 선두로 각광받고 있다. 2011년 하반기 ESCO정책자금 지원지침의 변경사항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1. 2011년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예산)

예산 현황				
사업구분	기업구분	예산	접수현황	
			금액(억원)	비율
ESCO투자사업		3,900	1,752	44.9%
절약시설설치사업	목표관리 사업	1,096	579	52.8%
	산업체, 절약 사업	1,022	833	86.4%
	소계	2,118	1,412	66.7%
총계		6,018	3,164	52.6%

ESCO 자금 규모

ESCO투자사업의 예산을 중소기업(건물부문 포함), 대기업(공공기관 포함)으로 배정하여 운영

※ 중소기업(건물) : 3,000억원(77%), 대기업(공공기관) : 900억원(23%)

구분	정책자금(ESCO자금)			민간융자금
	중소기업 / 건물	대기업 / 공공기관	계	
지원대상	중소기업 / 건물	대기업 / 공공기관	계	공통
지원규모	3,000억원	900억원	3,900억원	1,500억원
대출금리	연 2.75%	연 2.75%	연 4.55%	

※ 민간융자금(ESCO펀드)는 공단에서 한국정책금융공사에서 차입하여 대출

ESCO 자금 지원 현황

중소기업/건물의 부문은 55.4%을 지원하여 집행 부진예상

※ 대기업/공공기관은 111.8%를 지원

(2011년 6월 30일 기준)

기업구분	예산(억원)	추천		대출		비고
		금액(억원)	비율	금액(억원)	비율	
중소기업·건물	3,000	1,661	55.4%	345	11.5%	
대기업·공공기관	900	1,006	111.8%	627	69.7%	3월초 접수마감
계	3,900	2,667	88.9%	972	24.9%	

※ 추천에는 검토 중인 사업 포함, 반려·포기분 제외

2.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예산조정 운용계획

조정 운용 방안

- (절약시설설치사업 예산확대) ESCO 중소기업·건물부문 예산 중 500억원을 절약시설설치사업 중소기업 부문에 추가 지원
- (ESCO 대기업 지원 예산확대) ESCO 중소기업·건물부문 예산 중 450억원을 ESCO 대기업·공공기관 부문에 추가 지원 (단, 지원비율은 50%임)
 - 잔여 50%는 ESCO 민간융자자금에서 지원
- (민간융자금 지원 개시) 민간융자금의 지원개시
 - 대기업·공공기관 부문의 잔여 50%를 민간융자금에서 동시 지원

〈2011년 ESCO자금 융자예산 조정내역〉

구분	정책자금			민간자금
	중소기업·건물	대기업·공공기관	계	
지원대상	중소기업·건물	대기업·공공기관	계	공통
지원규모	2,050억원	1,350억원	3,400억원	1,500억원
대출금리	연2.75%(고정금리)	연2.75%(고정금리)	-	연4.55%(고정금리)
증감	△950억원	+ 450억원	△500억원	

※ 500억원은 절약시설 설치사업 중소기업 부문에 지원

3. ESCO 민간융자금 지원

지원 조건

- 지원 규모 : 최대 1,500억원
- 지원 대상 : 대·중소기업 제한 없음
 - 대기업·공공기관 ESCO사업 지원 시 정책자금과 민간자금을 5:5의 비율로 혼합하여 지원
 - 혼합하여 지원하는 근거를 개정된 지침에 반영
- 대출기간 :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 공단과 한국정책금융공사와의 ESCO 민간융자금 대출약정에 따라 자금사용자의 상환기간이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에서 일부 단축 조정될 수 있음
- 대출이자율 : 연4.55% (고정금리)
 - 정책자금과 혼합 지원하는 경우 이자율 인하효과 발생 (4.55% → 3.65%)
- 해외 ESCO투자사업은 민간자금에서만 지원됨 (정책자금 지원 불가)
 - 최대 300억원 범위내에서 원화로 대출
 - ※ 동일투자사업장당 150억 원 이내
 - 성과배분계약 또는 신성과배분계약에 한함
 - 계속사업일 경우 금년도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자금만 지원
- 대기업 부문 추가예산(450억 원) 소진시 민간융자금으로만 지원
- 융자취급수수료 : 연 0.9% (금융기관 수수료는 대출이자율에 포함)
 - 정책자금의 대출취급수수료는 연 1.5%임

행정 사항

- 대기업 부문 자금신청시 재원(정책자금/민간자금)별로 각각 추천신청해야 함
 - 재원별로 신청시 신청금액에는 소요자금 총액을 각각 기재
 - 심사 후 재원별로 융자추천서 발급(지원비율은 각각 50%임)
 - 사업별 소요금액에 따라 심사·평가
- ※ 민간자금만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간 자금만 추천신청을 함
- 중소기업 부문은 종전과 동일하게 신청 및 지원
- 추천번호 부여는 동일한 번호 부여 예정
 - 정책자금 : 97 - 2011 - 0123
 - 민간자금 : 97 - 2011 - 7123¹⁾

1) 7xxx의 7은 민간자금을 의미하는 구분자임

- 추천서 발급 후 금융기관 변경 등 추천변경 신청시 일괄로 신청해야 함
 - 재원별로 달리하는 추천변경은 불가
- 금융기관의 기성확인·대출실행 또는 취소·포기 등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자금추천시 적용한 지원비율과 동일한 비율을 적용하여 처리

기타 사항

- ESCO 민간자금으로 추천받은 사업은 추천 포기 후 정책자금으로 재신청 불가
- ESCO 민간자금으로 추천을 받은 자금을 대하여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자체투자설적으로 인정
- ESCO 해외투자사업에 대하여는 투자수요에 따라 필요시 총 지원규모 변경가능
- 혼합하여 추천하는 과정에서 추천금액이 다소 감소할 수 있음
 - 추천대상액이 홀수일 경우에 해당

4. ESCO 자금 지원절차 변경

추천 절차

- 7월 1일 이후 잔여예산 소진시까지 수시 접수 후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
- 평가방식 : 신청사업의 추천대상금액으로 구분 운영

구분	평가자	추천기준
추천대상금액 40억원 이상	자금추천위원회(관련분야 전문가 15인 이내)	평가결과 70점이상
추천대상금액 10억원 이상	자금추천 평가위원(관련분야 전문가 3~5인 이내)	
추천대상금액 10억원 미만	공단 내부평가	

- 사업별 대상금액을 기준(혼합 지원의 경우 정책자금 기준)으로 하며,
- 계속사업의 경우 총 추천대상금액 기준임
- 추천대상금액이 40억원미만 이더라도 자금지원 대상여부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금추천위원회에서 평가 실시
- 평가면제 사업 : 추천대상금액이 50백만원 이하인 경우, 의무진단실시사업 등
- 해당 예산의 110%까지 추천예정
- 9월 이후 잔여 예산이 발생할 경우에는 세부사업별(ESCO사업 및 절약시설설치사업), 기업별 구분 없이 통합하여 접수순으로 자금지원
 - 단, ESCO 대기업 부문은 추가 지원 없음